2. 아홉가지 용모

몸과 마음을 거두어 단속하는 데는 구용(九容)*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발걸음은 진중하게*(어른 앞에서는 예외)

손모양은 공손하게(부지런히 움직이되 일이 없을 때는 단정히 손을 모음)

눈의 시선은 단정하게(흘겨보거나 훔쳐보지 않음)

입은 다물기(말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목소리는 조용하게(구역질, 트림이나 잡소리를 내지 않음)

머리는 곧바로 세우기(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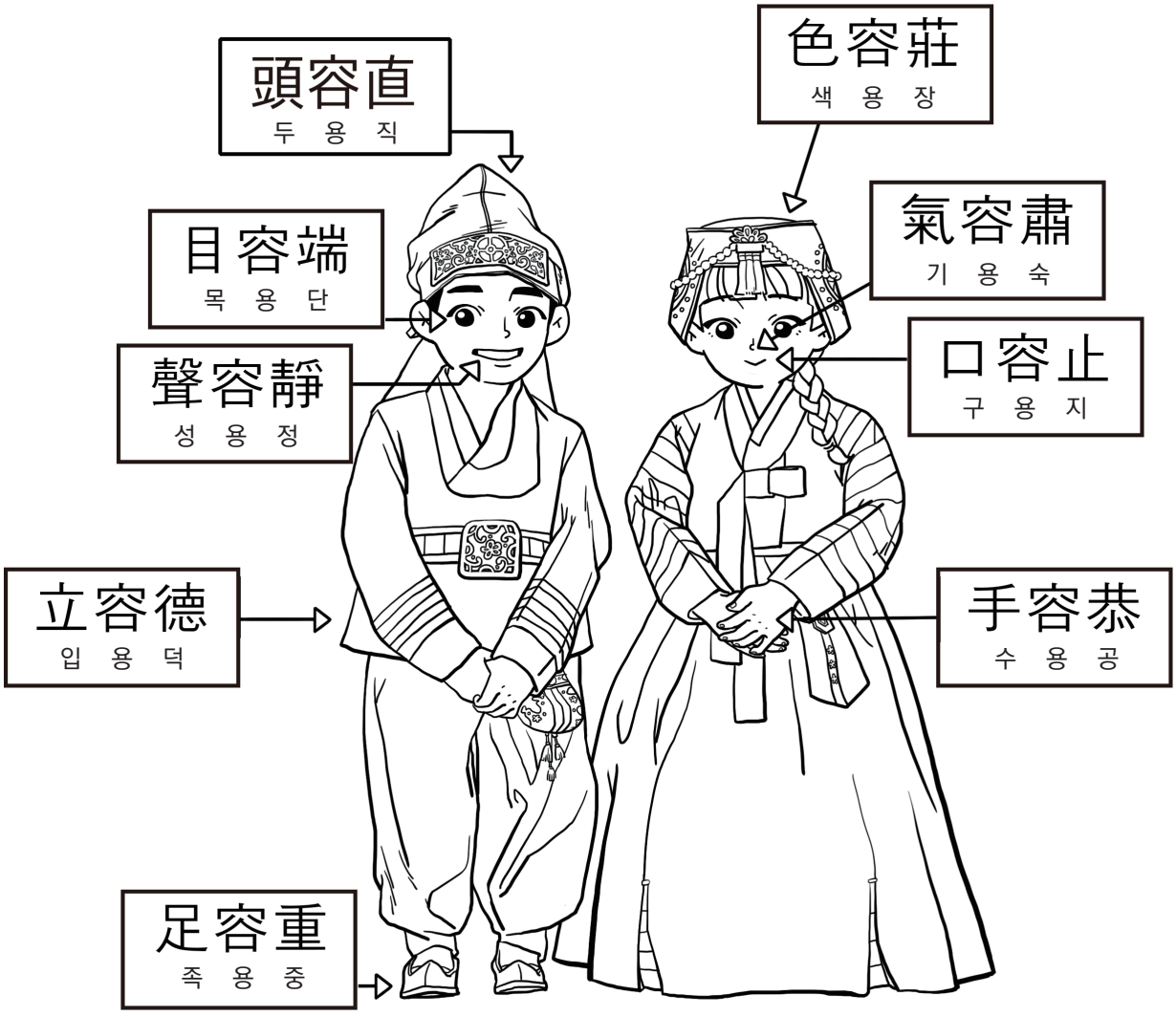
호흡은 엄숙하게(소리가 나지 않게 고르게)

선 자세는 덕이 있게(가운데 서고 기대지 않음)

얼굴빛은 장엄*하게(단정하고 게으르지 않게) (『격몽요결』「지신장」)

*구용(九容) : 아홉 가지 몸가짐. 이 내용은 『예기』 가운데 일부 내용임
*진중하게 : 무게가 있고 점잖게
*장엄(莊嚴) :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엄숙함
*(괄호 안은 율곡 선생의 말)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頭容直
두 용 직
色容莊
색 용 장
目容端
목 용 단
氣容肅
기 용 숙
聲容靜
성 용 정
口容止
구 용 지
立容德
입 용 덕
手容恭
수 용 공
足容重
족 용 중

본문 해설

본문에서 아홉 가지 몸가짐 곧 구용(九容)을 말하는 것을 보면,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같기도 해요. 어떻게 눈과 입과 목소리는 물론이고 호흡과 얼굴빛까지 신경 쓸 수 있나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발걸음을 진중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가볍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진중하게 걸으라고 하면 어쩌면 건방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時間에 쫓기는 요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지요?

게다가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 머리를 곧바로 세우면 아주 거만하고 뻣뻣하게 보일 수 있어요. 더구나 서 있는 자세는 德이 있고, 얼굴빛은 장엄하게 하라는데, 연기를 잘하는 배우에게 시켜도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올바르다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고요? 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행동해 왔기 때문에 習慣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지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손모양은 공손하게 눈은 단정하고 입은 다물고 목소리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통하며, 그렇게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 어른이라면 옛 가르침을 따라 발걸음은 진중하게 호흡은 엄숙하게 그리고 바르게 서서 얼굴빛을 단정하게 할 수 있지요. 이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점잖고 예의 바르게 보여요.

생각해 볼 문제

1.나의 본 의도와 달리 나의 몸가짐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몸가짐 때문에 그랬는지 한 가지만 써 보세요.

2. 자기 마음만큼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은 보이지도 않지만 잡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한 구용(九容) 속에 그 원리가 들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 마음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

3. 앞의 아홉 가지 용모를 요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있다면 하나만 찾아내어 그 까닭을 말해 보세요.

동의할 수 없는 것	
그 까닭	

4. 앞의 아홉 가지 용모 가운데 '걸음걸이를 진중하게' 하라고 하면서 '어른 앞에서는 예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른 앞만 아니라 또 어떤 곳에서 진중하게 걸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와 어떤 곳인지 두 가지만 말해 보세요.

①	
②	

5. 앞에서 소개한 아홉 가지 몸가짐을 잘 지키면 장차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의 어떤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보기)처럼 두 가지 경우만 써 보세요.

(보기)	시선을 단정하게 하면 선배를 무시했다는 오해를 안 받는다.
①	
②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手	足	耳	目	口	鼻	聲	色
손 수	발 족	귀 이	눈 목	입 구	코 비	소리 성	빛 색
손과 발 손발처럼 부리는 이		귀와 눈과 입과 코, 얼굴의 생김새				소리와 빛 목소리와 얼굴색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① 나는 失手(실□)로 工夫時間(□□□□)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② 每事(매□)에 滿足(만□)할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다.

③ 그는 남의 耳目(□□)이 무서워 夜間(□□)에만 밖에 나온다.

④ 머리를 染色(염□)하러 갔더니 가게 入口(□□)가 막혀 있었다.

3. 다음의 한자가 들어가는 한글 낱말을 2개씩 찾아 (보기)처럼 써 보시오(국어사전 활용 가능).

(보기)	鼻	비성
		비염

手		足		目		聲	

4. 다음 한자의 뜻을 써 보시오.

① 父子 :

② 朋友 :

③ 夫婦 :

5. 다음 풀이를 보고 아래 한문을 해석해 보세요.

以東西南北으로 定天地之方하고, 以青黃赤白黑으로 定物之色하니라.

• 풀이 : 이(以)-'~으로써, ~을 가지고서'를 뜻하는 어조사/정(定)-정하다/지(之)-'~의'를 뜻하는 어조사/방(方)-방향, 방위/물(物)-만물

관련된 이야기

정승과 젊은 선비

우리 옛 이야기에요.

옛날 어떤 노인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묵게 되었어요. 마침 그 때 그 주막에는 손님이 많아서 노인은 과거 시험을 보러가는 어떤 젊은 선비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지요.

일찍 저녁밥을 먹은 탓이라 아직 잠잘 시각이 일러서 노인은 衣冠(의관)을 갖춘 채 방 가운데 단정하게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반면 젊은 선비는 노인의 이런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쓰고 있던 갓과 겉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 말했어요.

"이보시오, 노인장! 피곤하시면 저처럼 편하게 앉으시지요. 처음 본 사이이지만 일부러 점잖은 척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점잖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따라서 흐트러지는 법이라네. 마음을 잘 단속하려면 몸을 잘 단속해야 하는 거라네."

젊은 선비는 별 노인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에 드러누워 드르렁 코를 골며 이내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과거시험이 끝나고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그 선비도 급제하여 대신들 앞에 나와 인사를 올렸어요. 이 때 정승 가운데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도 편하게 앉아 인사를 받는데, 이번에 급제한 젊은 선비들도 점잖은 척 할 필요 없이 우리 옆에 편안히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소?"

그 말을 들은 젊은 선비가 깜짝 놀라 그 정승을 쳐다보니 지난번 주막에서 같은 방을 썼던 그 노인이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 그 젊은 선비는 그 정승 앞에서만이 아니라 조정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며 고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승이 그 젊은 선비의 행동을 일일이 지켜보았을 테니, 젊은 선비가 힘들게 관리 생활을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관련 인성 가치	예절